

2019년 하반기



해외출장 가이드

뉴질랜드 오�클랜드 출장자료

【 목 차 】

I. 국가개요	1
II. 뉴질랜드 경제 동향	4
III. 한-뉴 교류 협력 관계	10
IV. 체재 안내 정보	12





I. 국가개요

1. 국가 개황

국 가 명	뉴질랜드(New Zealand)
위 치	남반구 남서 태평양 (호주대륙에서 동남쪽으로 약 2,000km)
면 적	269,036 km ² (남한의 2.7배)
기 후	온난해양성 기후(1월 평균 16.5도, 7월 평균 8도)
시 차	한국 기준 3시간 빠름 (일광절약제 기간 동안 4시간 빠름) 일광절약제: 10월 마지막주 일요일~4월 첫주 일요일
수 도	웰링턴(Wellington)
인 구	495만명 (2019년 1/4분기 추정치)
주요도시 (인구)	오클랜드 (153만), 웰링턴 (45만, 수도), 크라이스트처치(37만), 해밀턴 (15만)
민 족	유럽인(70%), 마오리(14%), 아시안(11), 태평양 도서국(7%), 기타(2%) (2013 인구센서스)
언 어	영어(공용어), 마오리어(원주민어)
종 교	기독교(약 47%), 힌두(2%), 기타 여러 종교 및 무교
건 국 일	1840.2.6 (영국 총독과 마오리 대표간 Waitangi 조약 체결)
정부형태	의원 내각제 (3년마다 총선실시)
국가원수	Queen Elizabeth II 영국 여왕
수 상	Jacinda Ardern (노동당, 2017년 10월 취임)
GDP	US\$ 2,030억 (2018년)
실질경제 성장률	2.8% (2018)
1인당GDP	US\$ 40,799 (2018)
실 업 율	3.9 % (2019년 2/4분기)
물가상승률	1.7 % (2019년 2/4분기)
화폐 단위	NZ Dollar(NZ\$)
환 율	US\$0.64/NZ\$1.00 (2019년8월20일)
외환 보유고	US\$ 172억 (2019년 7월)
산업 구조	1차산업 7.40%, 2차산업 20.66%, 3차산업 64.42%
교역 규모	수출: US\$ 398억 (2018) 수입: US\$ 418억 (2018)
대한 교역 규모	○ (대한)수입(2018년) : US\$ 1380백만 - 주요품목 : 자동차 및 부품, 석유제품, 철도차량, 건설중장비 등 ○ (대한)수출(2018년) : US\$ 1744백만 - 주요품목 : 원목, 메탄올, 낙농품, 육류, 펄프 등



2. 뉴질랜드 역사

시기	주요 내용
1642	네덜란드인인 아벨 타스만이 최초로 발견
1769	영국인 제임스 쿡 선장의 뉴질랜드 측량 및 유럽인 이주 시작
1840.1	William Hobson 초대 총독, Bay of Islands에 정착
1840.2	Hobson 총독과 마오리족 대표 간에 Waitangi 조약 체결
1860-70	토지문제로 인한 마오리족과의 분쟁
1893	여성참정권 세계 최초 인정
1907.9	영국의 자치령(Dominion)
1912	여성 피선거권 부여
1950.6	한국전쟁 참전
1964	월남 파병
1997.7	Mike Moore 전총리 WTO 사무총장 선출
1999.9	제 7차 APEC 정상회의 개최 (오클랜드)
2001.3	북한과 수교
2011.11	국민당 총선 승리 (John Key 총리 연임)
2013.3	동성결혼 합법화 법안 통과
2014.9	국민당 총선 승리 (John Key 총리 3연임)
2015.3	한-뉴 FTA 정식 서명
2016.12	John Key 총리 사임 선언, Bill English 신임 총리 취임
2017.10	노동당 총선 승리, Jacinda Ardern 신임 총리 취임
2018.6	Jacinda Ardern 총리 출산으로 Winston Peters 부총리가 총리직 대행 (3개월간)

3. 뉴질랜드 정치제도

□ 개요

- 정치제도 : 입헌군주국
- 국가원수 : Elizabeth II
- 총독 : Dame Patsy Reddy (임기 5년)
- 총리 : Jacinda Ardern (제40대 총리)
- 의회 : 양원제로 출원하였으나 1951년 이후 단원제로 변경, 임기 3년

□ 주요정당

- 의석 확보 (5) :
National Party, Labour Party, NZ First, Green Party, ACT
- 의석 미확보 (7) :
Aotearoa Legalise Cannabis Party, New Conservative, Mana Party,
Maori Party, New Zealand Democratic Party for Social Credit,
New Zealand Outdoors Party, The Opportunities Party (TOP)

□ 총의석수

번호	정당(의석)	로고	당수	참고사항
1	노동당(46) Labour party		Jacinda Ardern	1916년 창당, 현 집권여당. 중도좌파 성향으로 좌파진영 대표
2	국민당(55) National party		Simon Bridges	1909년 창당, 중도우파 성향으로 우파진영 대표. 이민자들에게 친화적임
3	뉴질랜드제일당 (9) NZ First		Winston Peters	1993년 창당, 우파 혹은 극우 정당. 현 노동당과 연립정권 구성, 당수가 부총리직
4	녹색당 (8) Green party		James Shaw, Marama Davidson	1990년 창당, 환경보호 개발반대 등 환경론적 기반. 진보적인 사회 정책 추진
5	행동당 (1) ACT		David Seymour	1994년 창당, 민생치안, 세제개편 등을 추진하며 정부의 책임성과 투명성 증진을 목표



II. 뉴질랜드 경제 동향

1. 주요 경제 지표 및 경제 전망

□ 최근 뉴질랜드 경제동향

○ 완만한 플러스 경제성장 지속

- 2019년 1분기 기준 GDP 성장률은 2.7%로 성장 기초를 유지하고 있음
- 최근 3년 2%대(2017년 2.6%, 2018년에도 2.8%)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나 2015년, 2016년 4% 성장률 대비 시 저성장 추이를 보이고 있음
- 노동당 정부의 이민법 강화조치(2017년)이후 이민자 유입의 감소와 외국인에 대한 부동산 투자 제한 조치가 시행중

○ 민간소비심리 소폭 상승

- 2017년 130포인트 대를 유지하던 소비자 신뢰지수가 2018년 117 포인트로 하락 경제안정과 소득의 만족도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안심리가 낮아졌음.
- 2018년 4분기 이후 도로 및 도시철도 개발등의 인프라 건설수요와 임업 및 낙농업 제품의 꾸준한 수출량 증가로 2019년 123포인트로 반등 소비자들의 안정적 경제성장에 대한 기대심리 반영 (ANZ 은행 2019 경제동향)

○ 안정적인 고용율과 최저임금 인상

- OECD 2019년 경제보고서에 따르면 뉴질랜드는 77.5% 고용율을 보이며 비교적 안정적 고용시장을 유지
- 최저시급도 매년 꾸준히 인상되며 2019년 기준 NZ\$17.70로 OECD 평균 최저시급(NZ\$11)보다 높은 금액을 유지하고 있음

○ 주택가격의 급등으로 인한 불안요인

- 뉴질랜드 주택가격은 2019년 현재 OECD 실주택가격지표 기준 270점으로 OECD 평균지표인 140대비 두배 가까이 높은 가격임
- 가계소비지출에 있어 주택임대비용 및 모기지 비용부담이 커지고 있음



주요 경제지표

(단위 : US\$, %)

주요지표	단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
인구	백만 명	456	465	475	482	490	492
GDP	십억 달러	199	175	185	201	203	202
1인당 GDP	달러	36,977	36,910	38,516	40,106	40,799	42,018
성장률(실질GDP)	%	3.1	4.0	4.2	2.6	2.8	2.5
실업률	%	5.4	5.4	5.1	4.7	4.5	4.2
소비자물가상승률	%	0.7	0.1	1.3	1.6	1.9	2.3
재정지수(GDP대비)	%	-1.1	0.3	0.9	1.6	2.0	0.6
총수출	백만 달러	41,962	34,428	33,645	38,180	39,804	40,909
(對韓 수출)	"	1,462	1,225	1,098	1,214	1,380	미확인
총수입	"	41,000	35,786	35,535	39,737	43,330	43,150
(對韓 수입)	"	1,817	1,263	1,305	1,306	1,744	미확인
무역수지	백만 달러	961	-1,358	-1,890	-1,558	-3,526	-2,241
경상수지	"	-6,193	-4,869	-4,196	-5,873	-7,554	-7,045
환율(연평균)	현지국/US\$	1.28	1.46	1.44	1.41	1.49	1.55

* 자료원 : IMF, OECD, 뉴질랜드 중앙은행, ANZ 은행, 뉴질랜드 통계청

□ 향후 경제 전망

○ 2019년 하반기 까지 2.5% 대의 경제성장 예측

- 이민자유입의 감소와 주택가격의 상승세 둔화로 소비심리 위축이 전망되나 최저임금 인상과 관광객증가는 소비진작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
- 정부주도의 대규모 교통인프라 개선사업과 민간주택공급 프로젝트를 통해 안정적인 건설수요가 지속될 것으로 기대
- 미중 무역마찰과 유로존의 경기둔화 등 글로벌 시장의 긴장 속에 당분간 뚜렷한 경제성장 모멘텀을 찾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 뉴질랜드 중앙준비은행은 2019년 5월 기준금리를 1.75%에서 1.5%로 인하한 이래 8월에 1.0%로 금리를 추가인하 하며 연말까지 저금리 기조 유지 예상
- 이로 인해 뉴질랜드 달러화의 가치가 약세가 예상되고 이는 유학/관광업에 경쟁력을 주어 임업 및 낙농업 등 수출상품들의 경쟁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



2. 뉴질랜드 교역 현황

□ 뉴질랜드 주요 수출입 대상국

- 일부 국가에 수출입 의존도가 높은 뉴질랜드
 - 10대 수출국이 전체 수출의 73%를 차지하고 있으며 10대 수입국은 72%로 일부 국가에 수출입 의존도가 높음
 - 중국의 낙농, 원목 수요증가로 對중국 수출 금액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 수출금액 증가 견인하고 있음

뉴질랜드의 주요 수출국가 (2019년 7월 누적)

(단위: US\$ 백만, %)

순위	국가	수출금액	비중
1	중국	6,304	27%
2	호주	3,280	14%
3	미국	2,389	10%
4	일본	1,458	6%
5	대한민국	731	3%
6	영국	634	3%
7	홍콩	532	2%
8	대만	509	2%
9	말레이시아	449	2%
10	태국	433	2%

뉴질랜드의 주요 수입국가 (2019년 7월 누적)

순위	국가	수입금액	비중
1	중국	4,480	19%
2	호주	2,649	12%
3	미국	2,235	10%
4	일본	1,510	7%
5	독일	1,361	6%
6	태국	1,024	4%
7	UAE	926	4%
8	대한민국	915	4%
9	말레이시아	831	4%
10	싱가포르	667	3%

자료원 : Global Trade Atlas



뉴질랜드의 연도별 수출입 실적

(단위 : USD 백만, %)

구분	2015년	2016	2017	2018
수출 (증감률)	34,364 (-17.43)	33,756 (-1.76)	38,075 (12.79)	39,838 (4.63)
수입 (증감률)	36,571 (-13.96)	36,079 (-1.31)	38,341 (11.43)	41,840 (9.12)
교역량 (증감률)	70,935 (-15.68)	69,835 (-1.51)	76,417 (11.59)	81,678 (6.88)
무역수지	-2,199	-2,323	-266	-2,002

자료원 : Global Trade Atlas

□ 최근 수출입 동향

○ 수출동향

- 뉴질랜드 통계청(2019.6월 기준)에 따르면 총 수출액은 31.8억 달러를 기록
- 전년 동기 대비 목재 수출이 0.41억 달러(16%) 증가한 3억 달러로 대외 수출 증가의 주요 원인이 되었으며, 낙농제품 역시 중요한 주력 수출품목으로 0.25억 달러 증가한 6.97억 달러를 기록함.
- 반면에 전년 동기 대비 석유 및 관련제품(액체, 천연가스, 잔여 오일등)의 수출이 감소하여 전체 수출 증가율을 상쇄함.

○ 수입동향

- 전체 수입액은 29.47억 달러를 기록하며 수출액 대비 2.31 달러 흑자기록
- 전년 동기대비 석유 및 석유제품 수입이 39% 감소 3.13억 달러 기록
- 자동차 부품 및 액세서리 수입역시 16% 감소한 제품 수입이 2.03억 달러(39%)감소한 4.21억 달러를 기록함
- 선박, 보트 및 부양식 구조물 등의 수입이 91% 감소한 0.62억 달러로 수입량 감소의 주원인이 됨



□ 對韓 교역동향

- '19년 6월 누적 기준, 한국의 대 뉴질랜드 수출은 6.43억 달러이고 수입은 7.29억 달러로 - 0.86억 달러의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
- (수출) 경유, 휘발유, 제트유와 같은 정제유의 수출비중이 높으며 꾸준한 인프라 건설수요로 건설중장비와 철강판등이 주요 수출제품임
- (수입) 뉴질랜드산 친환경 식품에 대한 꾸준한 수요로 치즈, 분유, 버터 등 낙농품의 수입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원목역시 주요 수입품목으로 0.9억 달러 교역규모를 유지함.

한국의 對뉴질랜드 주요 수출품목

(단위: US\$ 천, %)

순위	품목명	2018		2019.06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총계	1,743,547	0.0	643,387	-33.7
1	경유	832,854	77.2	113,873	-52.2
2	승용차	296,174	0.6	113,018	-25.3
3	휘발유	83,312	26.5	103,848	-54.3
4	건설중장비	73,697	24.8	27,368	-30.3
5	제트유 및 등유	52,987	8.7	22,938	-49.9
6	합성수지	24,602	16.9	22,111	-23.8
7	화물자동차	19,290	0.4	15,464	139.8
8	석도강판	18,793	451.0	12,763	17.6
9	축전지	18,037	-1.8	12,254	-9.0
10	기타철강금속제품	17,203	10.7	10,344	4.8

한국의 對뉴질랜드 주요 수입품목

순위	품목명	2018		2019.06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총계	1,380,055	13.7	729,374	4.4
1	낙농품	335,829	-6.7	125,160	-4.9
2	원목	298,474	21.3	89,312	-19.4
3	알루미늄괴및스크랩	136,092	9.9	64,987	104.8
4	과실류	113,450	21.3	58,998	55.4
5	가축육류	92,776	43.6	24,093	-7.5
6	고철	57,383	28.7	24,040	209.4
7	펄프	50,725	497.7	20,018	-21
8	유연탄	42,337	47.5	18,128	2
9	꿀및로얄제리	31,754	35.8	17,980	40.1
10	동물성한약재	39,296	224.7	31,672	-11.3

자료원 : 무역협회



3. 뉴질랜드 진출 현황

□ 우리기업 투자진출 동향

- 조림사업과 관련한 우리나라 기업의 직접투자 사례
 - 상대적으로 경제성이 떨어지는 한국에서의 목재투자사업과 달리 별도의 토지구매 없이 벌목권(Cutting Right) 구매를 통해 원목 생산가능
 - 한솔뉴질랜드, 선창산업이 한국기업으로 조림지 투자 사업을 진행 중임

□ 경쟁국 동향 (중국, 일본)

- OECD 국가 중 최초로 중국과 양자 FTA 발효(2008년)
 - 중국과 뉴질랜드는 2019년을 중-뉴 관광의해로 지정하는 등 양국간 고위급 교류를 통해 구체적인 협력방향을 꾸준히 제시하고 있음
 - 서방국가 중 최초로 중국과 일대일로 협력의서에 서명하고 뉴질랜드의 과학기술, 바이오의약, 농업등 양국이 강점을 가진 분야에 연구협력을 지원
 - 최근 낙농업, 유제품공장과 같은 식량자원 확보를 위한 투자와 조림지 조성 및 원목 제재를 위한 사업에 투자하고 있음
- 일본주도의 CPTPP를 통한 경제동반자 협정에 참여
 - 뉴질랜드는 2019년부터 시작되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 경제협정 발효로 일본시장개방에 기대감이 큼
 - 경제분야뿐만 아니라 교육, 연구, 스포츠 등 사회분야 협력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지 물류 및 대형 식음료업체 인수를 통해 투자 진출함

경쟁국 주요기업 뉴질랜드 투자진출 현황

(단위 : NZ\$ 억)

기업	진출현황	투자액
Shanghai Pengxin(중)	뉴질랜드내 12,000ha 규모 낙농장 인수	3
Haier(중)	뉴질랜드 유일의 가전사 Fisher & Paykel 인수	7
Yili Industrial(중)	뉴질랜드 남섬 티마루지역 대형 유제품 공장 설립	4
Fu Wah(중)	오클랜드 Park Hyatt 호텔 신축	2
Asahi(일)	음료제조사 Flavoured Beverages Group 인수	15
	음료제조사 Charle's Group 인수	13
Suntory(일)	음료제조사 Danone Holdings 인수	기밀
Japan Post(일)	호주-뉴질랜드 물류기업 Toll Holdings 인수	70
SMA(중)	뉴 최대 육류기업 SilverFernFamrs지분 50% 인수	3



4. 뉴질랜드 시장 특성

□ 테스트 베드 최적화된 시장

- 다양한 특성을 보유한 시장
 - 196개국의 213개 민족이 살고 있는 다민족 국가
 - 뉴질랜드의 오클랜드는 세계 4위의 다민족 구성 도시로(Multicultural city) 선정
 - 다양한 국가, 민족 출신을 대상으로 시장성 테스트 가능
 - * 화이자를 비롯한 글로벌 제약사들이 뉴질랜드를 Test Bed로 활용하고 있음
- 영어권 국가, 국제표준 활용
 - 영어권 국가 및 국제표준을 활용하는 점을 활용하여 시장 테스트 및 향후 선진시장 진입하는 교두보로 활용 가능
 - * LG CNS는 웰링턴 시의 교통카드 시스템을 수주하여 해외시장 테스트 및 경험을 쌓고 이를 바탕으로 그리스, 말레이시아, 콜롬보 등으로 진출함

□ 기업 설립 및 운영 친화 정책

- 기업설립 및 운영용이
 - 효율성을 중시한 선진화된 기업 설립 등록 절차 운영
 - 2018년 세계은행에서 선정한 기업하기 쉬운 국가 1위 선정
 - 2017년 World Economic Forum에서 선정한 국가경쟁력 13위 기록
 - 2015년 미 Heritage Foundation에서 발표한 경제자유지수에서 세계 3위 기록
 - 2014년 미 Forbes 紙에서 선정한 'Best Country for Business' 3위 선정
- 기업 친화 정책
 - 타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세율인 28% 단일 법인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간편한 세제 기준을 가지고 있음
 - 자본 수익에 대한 세금 부과 체계 없음
 - 오클랜드 시의 ATEED, 웰링턴 시의 WREDA 등 및 스타트업 육성, 안정적인 기업 성장을 지원하는 기업 지원 기관 운영
 -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직원 고용 비용
 - * 노후 지원 프로그램(국민연금 개념) 3%, 건강 보험 1.15%, 고용세(고용보험 개념) 0%



III. 한-뉴 교류 협력 관계

1. 정치 및 외교 관계

□ 한-뉴 정치·외교 관계

- 1962년 3월 26일 한국-뉴질랜드 간 국교 수립
- 1973년 10월 1일 KOTRA 오클랜드 무역관 개설
- 1978년 6월 21일 한국-뉴질랜드 의원 친선 협회 결성
- 1979년 3월 13일 한국-뉴질랜드 경제인 연합회(KNZBC) 결성

주요 정부인사 상호방문 연혁

방 뉴		방 한	
시기	방문자	시기	방문자
1968년 9월	박정희 대통령	1993년 5월	Jim Bolger 총리
1972년 2월	백두진 국회의장	1996년 5월	Jim Bolger 총리
1977년 8월	정일권 국회의장	1999년 7월	Jenny Shipley 총리
1999년 9월	김대중 대통령	2001년 5월	Helen Clark 총리
2000년 3월	박준규 국회의장	2003년 5월	Helen Clark 총리
2006년 12월	노무현 대통령	2008년 5월	Helen Clark 총리
2009년 3월	이명박 대통령	2010년 5월	John Key 총리
2014년 2월	강창희 국회의장	2012년 3월	John Key 총리
2018년 12월	문재인 대통령	2013년 7월	John Key 총리
		2015년 3월	John Key 총리



2. 뉴질랜드 내 한국 사회

□ 한국인 이민 사회

○ 초기 이민 사회 형성

- 1960~70년 대 원양어선 선원을 중심으로 뉴질랜드 이민 시작됨
- 1990년 대 초 뉴질랜드의 이민 문호가 개방되면서 한국인 이민자 유입
- 초기 이민자들은 편의점, 한국 식당, 관광업 등 서비스업에 종사
- 현재 약 3만 여명의 교민이 오클랜드를 중심으로 거주하고 있음

○ 한국 이민자의 뉴질랜드 사회 진출

- 1990년대 초기 이민자들은 편의점, 식당 등 한정된 산업에 종사하였으나 뉴질랜드 교육을 받은 1.5세대 및 2세대 이민자는 다양한 분야로 진출하고 있음
- 2014년 한인 최초 여성국회의원으로 멜리사 리 의원이 당선되었으며 2018년 현재 4선 의원으로 활동하고 있음
- 여자골프 선수인 리디아고는 여자골프 세계 1위에 오르는 등 뉴질랜드 최고의 스포츠 스타로 대우받고 있음

□ 뉴질랜드 내 한국기업 진출 현황

○ 식품유통 및 생산법인

- 오투기가 가공식품의 유통과 생산을 위해 오클랜드에 진출함
- 각종 소스 제품과 마요네즈등을 생산하며 한국으로부터 라면등을 수입유통
- 뉴질랜드 소고기를 원료로 한 라면스프, 사골육수엑기스 생산

○ 수산업 진출 기업

- 동원수산, 지오엠이 원양어선 사업에 진출해 있음
- 수산업 분야 진출은 남섬에 주로 분포해 있으며 현지 회사와 합자하여 공동 운영 또는 운영을 위임하는 형태가 대다수임

○ 서비스업 및 판매 법인

- 항공 및 금융업에 대한항공, 국민은행이 진출함
- 삼성전자, LG전자, 기아차가 판매법인을 설립하여 현지 마케팅 활동 중
- 오스템 임플란트가 치과용 의료기기 판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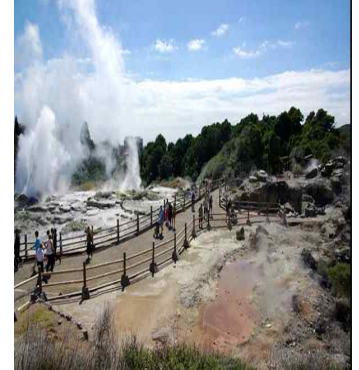


IV. 체재 안내 정보

1. 오클랜드 주요 관광 명소

사진	주요 명소
	○ 스카이 타워(Sky Tower) - 2년 9개월의 공사기간을 거쳐 완공된 스카이 타워는 328m로 남반구에서 가장 높은 건축물임 - 220m높이에 있는 스카이 데크(최고층)전망대는 이음새가 없는 유리창을 통해 360도의 오클랜드 전망을 감상할 수 있는 곳. 전망대에서 번지점프 같은 액티비티도 즐길 수 있으며 2개의 레스토랑이 있어 오클랜드 시내 야경과 식사를 동시에 즐길 수 있음.
	○ 원 트리 힐(One Tree Hill) / 콘월공원(Cornwall Park) - 원 트리 힐을 둘러싼 콘월공원은 캠벨 경이 당시 뉴질랜드를 방문한 콘월 공작 부부를 위해 국가에 헌납한 땅으로, 도심지에 있다는 느낌이 들지 않을 정도로 목가적인 분위기임 - 마운트 이든(해발196m)과 마찬가지로 오클랜드 내에 있는 많은 사화산 중의 하나로 해발 183m의 산꼭대기 전망이 일품임
	○ 오클랜드 도메인(Auckland Domain) - 시내 동쪽에 있는 오클랜드 도메인은 총넓이 34만 km²의 넓은 공원이며, 도메인 안에는 테니스코트, 럭비, 크리켓 경기장 등이 있으며 푸른 잔디로 덮여 있어 주말에는 시민들의 휴식처 역할을 하고 있음
	○ 전쟁기념 박물관(War Memorial Museum) - 도메인 안쪽 높은 곳에 고딕 양식의 중후한 건물로서 뉴질랜드를 대표하는 박물관임. 1층은 원주민인 마오리, 2층은 자연 과학에 관한 것들을 모아 전시 중이며 3층은 전쟁에 관한 전시관임

2. 뉴질랜드 주요 관광 명소

사진	주요 명소
	○ (테카포) 테카포(Tekapo), 푸카키(Pukaki) 호수 - (테카포 호수) 만년설과 호수, 선한목자의 교회로 유명. 호수는 빙하에 깎인 암석이 녹아 청록빛을 띠 - (푸카키 호수) 마운트 쿡의 설경과 하늘빛과 같은 호수빛이 절경을 이루는 곳
	○ (타우포) 호빗 마을(Hobbiton-Matamata) - 호빗 마을은 ‘반지의 제왕’과 ‘호빗’이라는 영화 촬영을 위해 지어진 대규모 세트장임. 원래는 촬영 후에 철거될 예정이었지만 지역주민들의 청원으로 관광지로 바뀜 - 개인 사유지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관광할 수 없고 오직 가이드 투어만 가능함
	○ (타우포) 와이토모 동굴(Waitomo) - 동굴 아래 냇물이 흐르고 있어 배를 타고 개뿔벌레의 일종인 ‘글로우웜(Glow Worm)’을 관광할 수 있음 - 어두컴컴한 곳에 가면 개뿔벌레가 마치 밤하늘의 은하계를 보는 것과 같이 촘촘히 빛나 신기함을 더해 준다고 함
	○ (로토루아) 간혈천 테 푸이아(Te puia) - 지열지대와 마오리문화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곳 - 지열지대에서 뉴질랜드에서 가장 높이(최대 30m) 물을 뿜는 간혈천을 볼 수 있으며, 마오리족의 노래와 춤으로 구성된 콘서트를 볼 수 있음



3. 입국 및 체류 시 유의사항

□ 입국 시 유의사항

- 비자 관련
 - 입국 후 출국 예정일로부터 3개월 이상 사용기간이 남아있는 여권 소지
 - 양국 간 무비자 협정으로 3개월 미만 체류 시 무비자 입국 가능
- ETA 사전신청 제도 (2019년 10월부터 시행)
 - 한국과 뉴질랜드간의 3개월 무비자 협정과는 별개로 ETA(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 온라인 여행허가 프로그램) 발급이 의무화됨.
 - 한국여권을 가지고 관광이나 비즈니스를 목적으로 방문시 사전에 ETA 신청이 필요하며 이때 관광세도 함께 납부가 가능함
- 입국절차 및 주의사항
 - 뉴질랜드의 입국심사는 이민심사, 세관신고, 동식물검역의 3단계 심사절차를 거치게 되며 특히 동식물검역과 관련한 규정이 매우 까다로움
 - 식품의 경우 세관신고를 하면 검사를 거쳐 대부분 반입을 허락하지만 신고를 하지 않고 들여오다 적발 될 경우에는 즉석벌금(NZ\$400)이 부과되고 반입도 불허됨
- 반입 제한 물품
 - 농산물, 육류 반입 시 신고 필수이며 미신고 적발 시 NZ\$ 400 벌금 부과
 - 담배 50개피, 위스키 1.15L 3병, 와인 또는 맥주 4.5L가 반입 허용 한도

□ 체류 시 숙지 사항

- 교통사고 유의
 - 최근 외국 관광객에 의한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
 - 뉴질랜드는 한국의 운전방향과 반대이므로 체류 기간 중 운전은 가급적 삼가도록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반드시 유의하여 운전하여야 함
 - 도로 횡단, 승하차 시 차량 진행방향이 다르므로 특별히 유의하여야 함
- 인터넷 환경 및 전압
 - 5성급 호텔의 대부분 객실에서는 인터넷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음
 - 한국에 비해 느린 인터넷 속도를 보이고 있으며 무료 와이파이 제공도 매우 드물어 관광객용 SIM카드를 구매하여 사용하는 것을 추천
 - 전압은 230V~240V, 50Hz이며 3 PIN 플러그를 사용하고 있음



○ 환전 및 팁 문화

- 평일 영업 시간에는 공항, 은행에서 환전 가능
- 도심 주요지역에는 사설 환전소등이 다수 분포해 있으나 별도 수수료 부과하는 경우가 간혹 있어 사전 확인 필수
- 팁 문화가 일반화 되어 있지 않아 택시, 호텔, 식당에서 팁 지급할 필요 없으나 일부 고급식당에서는 영수증 상 팁 금액을 기재하게끔 유도하는 곳이 있음

□ 해외피랍 예방요령

○ 신변안전 주의사항

- 낯선 이들에게 자신의 이름, 숙소, 향후일정, 동선 등 여행관련 정보나, 가족관계, 직업 연봉등 개인정보 유출 금지.
- 공신력 있는 여행사 현지 잘 아는 사람들의 경고에 귀를 기울일 것
- 주변의 사소한 변화를 경계하며 신변 위협 대상을 항상 고려 할 것
- 현지의 문화를 존중하고 거스르지 않아야 하며 눈에 띄는 복장이나 별난 행동은 삼가 할 것
- 피랍 시 절망하지 않고 구출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생각으로 음식물을 섭취하며 건강을 유지할 것



KOTRA 뉴질랜드 오클랜드 무역관

주소 | Level 16, 120 Albert St, Auckland, New Zealand

전화 | +64-9-373-5792

이메일 | akl_ktc@kotra.or.kr

www.kotra.or.kr